

바이든 “우크라 준비 안돼...나토 가입 시기상조”

리투아니아 빌뉴스서 나토 정상회의 개막...스웨덴 가입은 낙관적 냉전 뒤 첫 종합 방위계획 수립...9년 만에 방위비 지출 확대 추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1개국 정상들이 오는 11일(현지시간) '동부전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집결한다.

이번 연례 정상회의가 동맹 결속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대한 안전보장 차원에서 요구하는 '중전 뒤 가입 약속'이 어느 정도 수위로 합의될지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냉전 종식 뒤 처음으로 러시아의 전면전을 가정한 유럽 및 대서양 방위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한편 9년 만에 방위비 지출 확대 가이드라인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우크라 가입' 회원국 이견 계속=10일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는 대로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는 분명한 정치적 합의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도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나토는 이미 2008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조지아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천명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당시를 뛰어넘는 구체적인 약속을 요구한다.

그러나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나토 내부 고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점도 일부 회원국들을 주저하게 하고 있다.

가령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되찾지 못한 채 러시아와 휴전 혹은 중전 협상에 나설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 오호러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확답'을 주거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녹화 방송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쟁이 한창인 지금 나토 회원국으로 편입할지에 대해 나토 내 만장일치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민주화와 일부 다른 이슈 등 충족해야 할 다른 필요 조건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비해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 회원국들은 자국의 안보 우려와 맞물려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맞이하는 데 더 적극적이다.

◇냉전 뒤 첫 종합 방위계획 수립=나토는 정상회의에서 북극 및 대서양, 발트해 지역 및 유럽 중부, 지중해-흑해 등 유럽 남부 등 3개 구역에 대한 방위계획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지역계획(regional plans)으로 불리는 새 방위계획은 러시아 및 테러공격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를 목표로 한다.

유사시 나토 병력 30만명을 유럽 동부전선 일대에 30일 이내에 배치하는 한편, 회원국 간 상호 운용능력 강화 및 육해공 전반에 걸친 전력 증강이 추진된다.

차질 없는 방위계획 이행을 위한 방위비 지출 확대도 논의된다.

엔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바 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지출'로 돼 있는데, 나토는 이번 개정을 통해 2% 기준선을 '최소치'로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은 없지만,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함으로써 각국의 자발적 방위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역내 방산역량 생산 확대를 가속하기 위한 이른바 '방위생산 액션 플랜'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 가입 진전될까=이번 정상회의의 또 다른 주인공은 '나토의 이단아'로 불리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으로, 지연되고

있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를 매듭지을 사실상의 '캐스팅보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오랜 군사중립 정책을 폐기하고 핀란드와 함께 같은 해 5월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다.

이후 핀란드는 기존 30개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11개월 만인 지난 4월 31번째 회원국이 됐지만, 스웨덴은 튀르키예와 헝가리 제동에 아직 합류하지 못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웨덴에 반(反)튀르키예 무장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 대응 강화를 요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스웨덴에서 벌어진 이슬람계전인 쿠란 소각 시위 등 돌발 상황을 문제 삼아 최종 동의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튀르키예, 스웨덴, 핀란드 간 고위급 회동이 성사된 데 이어 이날 중 나토 총재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빌뉴스에서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와 직접 대면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 21명을 새로 임명했다고 9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서 주례한 일요삼중기도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추기경은 가톨릭 교회의 교계 제도에서 교황 다음으로 높은 성직자 지위로, 신임 추기경 21명 중 80세 미만인 18명은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에 임명된 21명은 미국,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콜롬비아, 남수단, 홍콩, 폴란드, 말레이시아, 탄자니아, 포르투갈 등 출신이다.

바티칸 교리국장인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즈 아르헨티나 대주교를 포함해 이들 중 3명은 최근 바티칸의 주요 부서장으로 임명됐다.

홍콩에서 스티븐 차우 주교가 신임 추기경이 된 점도 주목된다.

바티칸은 최근 중국 내 가톨릭 신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차우 주교는 이 같은 노력을 위한 교회와 중국 정부의 중요한 연결 고리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동 내 바티칸 최고위직인 피에르바티스타 피자발라 예루살렘 총대주교도 이번에 추기경이 됐다. 이들의 서임식은 9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인도 북부 폭우 최소 22명 사망 인도 북부지역에서 문순(우기) 폭우가 내린 가운데 9일(현지시간) 히마찰프라데시주 쿨루에서 비아스강이 범람한 모습이다. 이날 폭우로 인해 인도 북부 전역에서 산사태와 홍수로 최소 22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방중 마친 엘런 “디커플링 추구 안해...중국과 건설적인 대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중국 측과 실질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이번 방중을 건설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옐런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에 출연해 이번 방중으로 미중 간 긴장이 완화됐느냐는 질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방중이 매우 건설적이었다는 것"이라며 "난 환대받았고, 매우 실질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 카운터파트들과 약 10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중국을 방문해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옐런 장관은 리창 국무원 총리, 허리핑 부총리, 류허 전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판공성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 당 위원회 서기 등을 잇달아 만났다.

옐런 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에 이은 것으로, 지난 2월 중국 정찰 풍선의 미국 본토 영공 침투 및 격추 사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 해빙을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이어 옐런 장관은 중국 측에 기후변화 및 기타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 내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측의 처우 등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중국 내 미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조치는) 여전히 논의 중이며, 시행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만약 우리가 이러한 행정명령을 추진할 경우 투명하고 정밀하게 표적화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점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들의 국가 안보 이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표적화한 조치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황, 추기경 21명 새로 임명 홍콩·예루살렘 주교도 포함

바티칸은 최근 중국 내 가톨릭 신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차우 주교는 이 같은 노력을 위한 교회와 중국 정부의 중요한 연결 고리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동 내 바티칸 최고위직인 피에르바티스타 피자발라 예루살렘 총대주교도 이번에 추기경이 됐다. 이들의 서임식은 9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메타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 출시 1주일 가입자 1억명 육박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내놓은 새로운 소셜미디어 스레드 가입자 수가 서비스 출시 1주일도 안 돼 1억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매체 서치엔진저널은 9일(현지시간) 스레드 가입자 수를 보여주는 인스타그램 정보를 바탕으로 스레드 앱 계정 보유자가 9700만명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스레드 가입자는 지난 5일 오후 출시 후 16시간 만에 30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출시 하루 반 만에 7000만명을 넘긴 바 있다.

스레드의 가입자 1억명 근접 속도는 최근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을 불러온 챗GPT의 2달보다 훨씬 빠르다.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2년 반 만에 가입자 1억명을 달성했다.

'트위터 대항마'로 떠오른 스레드는 지난해 7월 기준 2억 3780만 명이었던 트위터 이용자 수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가입자 증가 속도에 대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위터를 겨냥해 출시된 텍스트 기반의 스레드는 메타의 인기 플랫폼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인스타그램 계정만 있으면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

시장 조사기업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의 수석 분석가인 자스민 엔버그는 "스레드가 트위터만큼 커지려면 인스타그램 이용자 4명 중 1명만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20억 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